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책 마련

전북도, 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과속운전·안전띠·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신고·점검 강화

전북도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1일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점검 강화, 안전문화운동 등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승일 행정부지사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등 관련 실국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군산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해 재난안전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 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신고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북도 차원에서 과제별로 추진 계획도 수립하고, 기관간 신속한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에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리반장 등 60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는



"이번에 확보된 추경예산은"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국회 추경예산과 관련, 전북도 요구사업 반영 및 군산 지원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계획이다. 안전보안관은 시군에서 40명씩 추천 받아 5~6월에 교육 후, 활동에 들어간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관행들을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 위협으로부터 도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24시간 상황관리 유지 및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등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4,795개소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 등 풍수해 폭염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한 표의 가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전북선관위, 한옥마을서 '시민참여 선거축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시민참여 선거축제'를 열었다.

'애나 지금이나'라는 부제를 가진 이번 시민참여 선거축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과거 투표 모습을 재현한 옛날 투표소를 설치하여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목재 투표함, 목재 기표대, 목재 기표용구 등을 유권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선거유세 퍼포먼스, 공연(국악, 버스킹, 취타대), 선거와 관련된 체험 및 전통놀이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투표함·투표용구·기표용구·기표대 변천사를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변

천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한옥마을의 옛스러움과 선거를 접목시켜 어우동, 임금, 유생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순회하며 이색적인 선거유세를 펼치고, 취타대가 거리행진을 하며 유권자들을 현장 투표소로 이끌어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단순한 투표참여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유권자들이 투표한 결과를 현장 개표를 진행하여 당선인까지 결정함으로써 일련의 선거과정을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동네의 축제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부동산재산세는 언제?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 과세

행안부, 과세기준일 소개

올해부터 한꺼번에 부과 세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중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2분의 1씩 나눠 연간 두 번(7·9월) 부과한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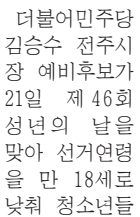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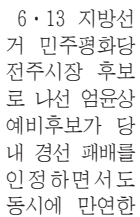
김승수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제 46회 성년의 날을 맞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만 18세 청소년들은 군대를 갈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세금 납부 등 의무를 다 지고 있는데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8세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간 수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줬고 학습능력과 정보 습득 능력이 우수하다"면서 "미성숙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배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막는 일"이라며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기동취재반

엄윤상, 경선결과 승복... "적폐 청산 지금부터"



6·13 지방선거 민주당경선 전주시장 후보로 나선 엄윤상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만연한 지역 적폐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엄 예비후보는 2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경선의 전주시장 경선이 시작부터 끝까지, 당과 상대후보는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본 후 "다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시민과의 약속대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 후보는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 시민 앞에 자랑스러운 정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위한 긴 장정을 시작하려 한다"고 선언하고 "정치다운 정치를 시민께 드리기 위해, 끝까지 적폐와 싸우겠다"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언급했다. 한편 평화당은 지난 19, 20일 전주시장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결과, 이현웅 후보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61.6%, 당원 여론 조사에서 68.4%를 얻었으며 합산 66%로 1위를 차지했다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